

식약처,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전국 본격 운영

- 초고령 및 다문화가정 상위 거주 지역 중심 맞춤형 안전교육 운영
-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올바른 사용법 등 생활밀착형 교육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올바른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약 70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은 식약처에서 식의약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접근성이 낮고 교육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에게 식품·의약품 등의 올바른 구매·사용 방법과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르신 대상 교육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5%를 초과하는 초고령 지역*이면서 최근 3년간 교육 실적이 없는 46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 기회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 의성군(49.2%), 군위군(49%), 합천군(47.4%), 임실군(43.3%), 보은군(42.4%), 청양군(42%), 강화군(40.8%), 횡성군(39.1%) 등(행정안전부, 2025년 기준)

또한 다문화가정 교육도 다문화가정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과 최근 교육 실적이 없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였다.

* 다문화가정은 전국 43만 9,304가구(가구원 123만 9,448명)이며 경기 30.4%, 서울 16.3%, 인천 7.3%, 경남 6.1%, 충남 5.5% 순으로 거주(행정안전부, 2024년 기준)

교육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며, 현장 교육 참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취약계층 대면 직종 종사자가 전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올바른 구매·사용 방법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사례 ▲식품 보관 및 식중독 예방 요령 ▲온라인 부당광고 및 허위·과대광고 식별 방법 ▲홍보관·체험방(일명 '뗏다방') 피해 예방 요령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자료에 실제 피해 사례를 반영하고, 큰 글씨와 그림 중심으로 가독성을 높여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다문화가정의 교육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식의약 안전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현선 (043-719-1711)
		담당자	사무관	유미숙 (043-719-2555)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연맹연합회

정보취약계층대상

2026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 전국 본격운영 -

식의약 안전교실? 식품·의약품 등의 올바른 구매·사용 방법과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 46개 지역 70회 운영

왜 필요할까요? 뗏다방 체험방, 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치료 효능 허위광고,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잘못된 건강정보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정보취약계층대상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교육 내용은?

1.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올바른 구매·사용 방법
2.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사례
3. 식품 보관 및 식중독 예방 요령
4. 온라인 부당광고 및 허위·과대광고 식별 방법
5. 홍보관 체험방(일명 '뗏다방') 피해 예방 요령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정보취약계층대상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방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정보접근성이 낮고 교육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 그리고 다문화가정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 운영 기간과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복지관, 문화센터, 경로당, 기관 등에서 운영됩니다.

교육을 원하는 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연맹연합회가 함께 운영하며, 교육 문의는 e-mail : sohyub@consumer.or.kr, shs0801@consumer.or.kr

정보취약계층대상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실적은?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은 2015년부터 시작했으며, 식약처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식의약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실적

연도	온라인 교육(명)	대면 교육(명)	교육 횟수(회)
2015년	64	3,133	-
2017년	332	18,734	-
2019년	636	37,769	-
2021년	870	46,387	-
2023년	1,120	57,868	-
2025년	1,263	64,905	-